



LG전자, 현실-가상 융합 '이세계 페스티벌' 열어

LG전자는 23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이세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콘셉트로 새 문화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Z세대에 인기가 높은 실제 아티스트와 함께 버추얼 아이돌인 '이세계아이돌'이 공연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LG전자는 도전과 실험정신을 대표하는 마케팅 플랫폼 LG 랩스의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라운지도 함께 소개했다. /LG전자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 '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한화손해보험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작한 범국민적 환경 캠페인이다.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페이퍼리스 업무 확대와 폐사무기기를 재활용해 선순환 구축 활동 중에 있다"며 "생활습관 변경 캠페인 등 환경보존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



LIG넥스원 임직원, 현충원 참배... 묘역 정화활동

LIG넥스원 임직원 가족들이 제75회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지난 2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와 봉사활동을 펼쳤다. 24일 LIG넥스원에 따르면 이날 LIG넥스원 임직원과 가족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봉사단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현충탑 참배 후 자매결연을 맺은 30묘역에서 현화와 태극기 교체 등 묘역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LIG넥스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차세대 항공전문가 양성 팔 걷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공사 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태국 민간항공교육원과 태국 내 차세대 항공전문가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최민아 인재개발원장(오른쪽)이 태국 민간항공교육원 퍼카넛 마초이 원장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김병연

부음

▲ 노금자씨 별세, 김성진(대한항공 기장)·김동하(개인사업)·김미진씨 모친상, 최영아·성지아씨 시모상, 황외진(MBC C&I 사장)씨 장모상 = 23일 오후 7시34분, 삼성서울병원 2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30분, 장지 시간 추모공원 02-3410-3156

빌린 돈 갚기 싫다고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



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B는 A로부터 사업자금으로 7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2년 후 반드시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B의 사정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A로부터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B는 처 C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 경우 A는 B에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형법 제327조). 민사재판의 집

행을 확보하고 그 실질적 적정을 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로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집행은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포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해 재산을 양도했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허위양도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돼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나타냄으로써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이르러, 이러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

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본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B는 대여금의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 및 소유권이전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당시 변제일시가 이미 지난 상황에서 A가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본안소송으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태세를 보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B가 배우자 C에게 한 채권양도 및 소유권이전 행위가 진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 역시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로 양도, 이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LG그룹, 전 세계 랜드마크서 부산 알린다... '엑스포' 유치 총력전

영 등 글로벌 유치교섭 활동 추진 "개최지 발표 시점까지 지속 홍보"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LG그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확정 2달여를 앞두고 전략적인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다.

LG는 엑스포 선정 투표일인 11월 말까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파리는 오는 11월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를 투표하고 발표하는 제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파리, 런던, 브뤼셀

은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BIE 회원국 대사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LG는 우선 11월 초부터 프랑스 파리 프낙 매장 4곳 대형 전광판에 부산엑스포 광고를 선보인다. 도심

에 있는 전자제품 및 도서 유통사로 많은 유동 인구가 지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파리 시내버스 약 2000대도 10월 말부터 부산엑스포 광고를 달고 다닌다. 11월 초에는 300여개 광고판을 더 배치한다.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대형 광고판이 설치된 상태다. BIE 회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런던과 벨기에 브뤼셀도 부산엑스포로 물든다.

LG는 10월 중순부터 영국 런던에서 2층버스에 래광광고를, 브뤼셀 중앙역 인근에는 대형 벽면 광고를 진행한다. 그 밖에도 뉴욕 타임스

퀘어와 영국 피카딜리 전광판에서 홍보 영상 상영 횟수를 10배나 늘리기도 했다.

구광모 회장 등 LG의 주요 경영진들도 엑스포 최종 발표까지 각국에서 유치 교섭 활동도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에도 신문광고 등 활동을 지속한다.

LG 관계자는 "부산엑스포가 한국의 산업 생태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 시점까지 부산의 매력을 널리 알릴 막판 유치전에 힘을 보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정관장 "소외된 이웃에孝 선물하세요"

대한적십자사와 '효배달' 캠페인

대한민국 대표 홍삼 브랜드 정관장은 추석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효(孝)배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효(孝)배달' 캠페인은 직원들이 모은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회사가 1:1로 매칭시켜 지원하는 '정관장

펀드'에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네티즌의 참여로 모아진 금액을 더해 2억원 가량을 재원으로 사용했다.

회사는 물론 임직원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는 이번 행사는 우리 주위에 소외된 어르신에게 '효'를 선물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자사 후원 국가대표 선수 8명을 초청해 대회 선전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선형(농구), '페이커' 이상혁(에스포트), 손지인(리듬체조), 조현주(스케이트보드), 송세라(펜싱), 최진우(높이뛰기), '비보이 워' 김현우(브레이킹), 오상욱(펜싱). /SK텔레콤

"항저우 아시안게임 함께 응원해요"

SKT '우리는 국대다' 캠페인

SK텔레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태극전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다양한 스포츠의 매력을 알리는 데 국민 응원 캠페인 "The Great Journey - 우리는 국대다"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2022항저우아시안게임을 열심히 준비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SK텔레콤은 네이버 스포츠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 대회 기간 중 아시안게임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대회 기간 매일 1개 주요 경기에 대한 '이슈톡'이 선정되며, 팬들은 이 공간에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경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동원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구매·영업분야 등 100여명 채용

동원그룹이 2023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회사는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동원푸드, 동원로엑스, 동원디어푸드 등 6개 기업이며 구매, 마케팅, 연구, 영업, 물

류, 생산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총 100여 명을 채용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 기졸업자나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 지원은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동원그룹 채용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